

배포 2025. 1. 8.(수)

경북교육청, 호치민시 학교와 문화 교류활동 개최

- 경북교육청글로벌교류단 65명, 호치민 4개 초·중·고교 방문
- 한글캘리그래피, 전통융합차 만들기, 민화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'호응'

- 경북교육청(교육감 임종식)의 학생 및 교원 등 총65명으로 구성된 경북글로벌교류단은 호치민시 레반탐초(Le Van Tam), 떤뚝초(Tan Tuc), 빈토중(Binh Tho), 판땅루우고(Phan Dang Luu)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과 문화 교류활동을 개최하였다.
- 이번 교류활동은 양국 학생들의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경북교육청과 호치민시한국교육원이 함께 준비하였으며, 호치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학교의 참여로 성사되었다.

[경북교육청글로벌교류단 문화 교류활동 개요]

- △ (일정) 1.8.(수) 레반탐초, 판땅루우고 / 1.9.(목) 떤뚝초, 빈토중
- △ (방문) 총 65명(학생 50, 교사 10, 인솔 5)
- △ (주요내용) 공동수업(한글캘리그래피, 전통융합차만들기, 민화그리기), 동아리활동 시연(K-pop, 댄스, 민화, 경주 역사), 공동행사(양국 전통놀이)

- 특히 경북교육청의 제안으로 양국의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가졌다.
- 점촌북초(문경시)는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, 청하중(포항시)은 밴드 공연, 소수중(영주시)은 K-pop 공연, 경주에일고(경주시)는 경주 역사문화 소개, 예천여고(예천군)는 민화 그리기 등을 준비하여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공유하였다.
- 레반탐초, 떤뚝초, 빈토중, 판땅루우고는 베트남 전통 의복(아오자이, Ao Dai)과 무용, 악기 공연 등을 선보였다.
- 학생들은 제기차기와 윷놀이, 대나무 줄넘기(나이 샵, nhay sap) 등 양국 전통 놀이를 함께 하며 유대감을 쌓았고, 향후 온·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약속하였다.

- 교류 활동에 참여한 레반탐초 레 부 타오 니(Le Vu Thao Nhi) 학생은 “베트남에도 잘 알려진 아파트 노래를 한국 학생들과 함께 부르고, 전통놀이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”고 하였다.
- 이번 교류를 총괄하는 경북교육청 백희욱 정책국장은 “호치민시 학교와 학생들의 높은 환대와 한국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, 향후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제교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기관	호치민시한국교육원	책임자	원 장	길 호 진 (84.28)3920-1274
		담당자	행정실장	박 정 원 (84.28)3920-1274





